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7월 25일

CUOMO 주지사, 뉴욕의 출입 가능 표지판과 로고 업그레이드에 대한 법안에 서명하다

미국장애인법 24주년을 맞이하여 제정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를 장애인 인권 옹호 지역로서 더욱 발전시키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법을 수정하여 새로운 또는 교체된 주 표지판에서 “장애가 있는(handicapped)”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출입 가능성(accessibility) 로고를 업데이트하며 나쁜 이미지를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되는 즉시 미국 장애인법 제24주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장애인법은 장애를 기반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요 단계였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해 뉴욕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과 싸우는 문제에 관한 한 뉴욕은 오랫동안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출입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일백만 이상의 뉴욕주민들에 대한 나쁜 인식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기존의 표지판과 언어가 사람보다도 장애 자체를 강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현재의 보편적인 기호는 휠체어를 차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는 보다 활동적인 모습(여기를 보십시오)을 담은 새로운 표지판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이 밖에, “장애가 있는”이라는 단어는 표지판 또는 다른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 사라지길 것이며, 현재는 오직 “출입 가능(accessible)”이라는 단어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David Carlucc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 24주년 전날 밤인 오늘 저는 출입 가능 아이콘 법안을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뉴욕은 미국 최초로 구시대적인 '장애(handicap)' 표지판 대신 보다 활동성 있고 참여적인 기호로 바꾸는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국에서 장애인 인권을 위해 빛나는 모범을 보이는 주가 될 것입니다.”

Sandy Galef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천 가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커뮤니티는 장애인에게 낙인을 찍고 부정적 의미 또는 이동 불가능의 이미지를 씌우는 구시대적인

언어와 기호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표지판과 새로운 언어는 업계, 학교, 정부 및 기관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는 긍정적으로, 고정된 의미는 활동적으로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고 우리 장애인 커뮤니티가 주류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내 지지자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미국 법에서 이 법안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